

SKT, CJ헬로비전 합병... “통신 독점·방송 공정성 훼손” 논란

SKT “방송+통신 콘텐츠 발전”... 업체들 “공정거래 위배” 공정위 120일간 심사 돌입... 정부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쟁업체인 KT와 LGU+는 “통신시장을 독점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SKT는 “통신과 방송을 융합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승인을 통과시켰다. 합병은 미래창조과학부 승인만 최종 남겨놓은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

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승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에 120일간의 심사 일정을 갖는다. 애초 SKT는 CJ헬로비전 합병추진의 배경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를 내세웠다. 투자를 바탕으로 멀티채널네트워크(MCN)와 VOD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 유망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SKT는 CJ헬로비전 인수

를 통해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망을 고도화하고,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조5000억원 상당 생산유발, 4만8000여명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SKT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통신시장 독점의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T와 LGU+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반경쟁적인 행위로, 되레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T가 내놓은 콘텐츠 생태계 확

성화 방안은 이동통신과 시장과 같이 콘텐츠 시장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독점적 이윤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합병을 전제로 한 투자·상생 방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제한성(제7조 4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수합병은 이동통신과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간 결합과 동시에 전국 IP-TV 사업자와 지역 유선방송 1위 사업자간 합병으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합병으로 알뜰폰을 포함한 SKT의 이동통신시

장 점유율 51.5%에 달해 시장지배는 물론,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점유율 50% 이상’을 넘어선다. 또 2위 사업자 KT와 점유율 차이도 22.3%로 규정범위(12.8%)를 벗어나는 데다 합병 후 SKT는 여전히 이동통신시장 1위라는 점 등 3가지 모두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게 경쟁업체의 설명이다. 반면, SKT는 통신시장 독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기준, 초고속 인터넷 관련, 지난해 11월 기준,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은 KT 41.6%(833만명), SKT 합병법인 29.4%(589만명)으로, 합병 후에도 1위 사업자인 KT 점유율이 더 높아 독점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쟁업체 한 관계자는 “결

합상품을 통해 충분히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수치 결합만 갖고 독점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4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며 “CJ헬로비전 전체 방송권역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최종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지속되면서 120일간 심사 일정에 들어간 공정위의 결과발표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300kg 초대형 참치 입고요~” 14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가매일식에 들어온 300kg 무게의 대형 참치를 이 곳 사장인 안유성씨와 직원들이 해체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밤 제주 앞바다에서 잡힌 이 참치는 아가미살, 뱃살, 등살 등 부위별 해체작업을 한 후 숙성과정을 거쳐 매장 고객들에게 판매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 브랜드 가치 99조원 세계 3위 1·2위는 애플·구글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99조원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위는 애플이었다. 14일 영국의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지난달 발간한 ‘2016 글로벌 500 연례 보고서’를 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831억8500만달러(약 99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817억1천600만 달러보다 1.8% 상승한 것이다. 순위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 3위를 차지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브랜드경쟁력지표(BSD)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매출 등을 고려해 브랜드 가치를 달러로 환산했다. 이렇게 계산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는 애플이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1459억1800만달러(약 174조)로 지난해 1283억300만달러보다 14% 증가했다. 애플은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3위였던 구글(941억8400만달러)은 올해 2위로 삼성과 순위를 맞바꿨다. 이어 4위 아마존(696억4200만달러), 5위 마이크로소프트(672억5800만달러), 6위 버라이즌(631억1600만달러), 7위 AT&T(599억400만달러), 8위 월마트(536억5700만달러), 9위 차이나모바일(498억1000만달러), 10위 웰스 파코(441억7000만달러) 등 순이다. 한국에서는 현대(36위), LG(102위), SK(143위), 신한금융(249위), 롯데(261위), KT(271위), 기아차(289위), 한국전력(414위), 두산(420위), GS(431위), KB금융그룹(433위), 포스코(436위), CJ(444위) 등이 500대 브랜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열겠다”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취임... 임기 4년

5번째 민선 농협 수장인 김병원 제23대 농협중앙회장이 14일 취임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김 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앞으로 4년간 농협중앙회를 이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농업인구 감소, 농가소득 정체, 인구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회 재무상황도 날로 나빠지는 등 농협은 창립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축한 현실은 농협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고 비정상적 정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창조경제 농업지원센터’ 설립을 소개하며 “스마트팜 육성과 6차산업 융합 등 농업의 경제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전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해 농협중앙회 개혁과 농축협의 균형 있는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구현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에는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임직원, 전임 회장단, 조합원, 관계 기관·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소속 해외 7개국 협동조합 회장은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협동조합 간 협력에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축전을 보냈다. 김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농협 임직원들과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으며, 취임식 후 경기 고양에 있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개원식 참석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광건영,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매입

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이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대광건영(주)에 매각됐다. 1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등에 따르면 대광건영이 지난달 호텔 소유자인 진흥건설, 채권단 등과 매매절차를 마무리짓고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경영권을 인수했다. 지난 2010년 호텔 운영법인 제이에이치관광개발(주)의 모기업인 진흥건설이 호텔 문을 연지 6년여 만에 오너가 바뀌게 됐다. 이번 계약에는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의

채권 525억원 중 60% 지분을 갖고 있는 금호건설을 비롯해 채권단과 대광건영, 제이에이치관광개발 등이 참여했다. 호텔 소유권 인도에 관한 매각 대금 등에 대해 대광건영이나 진흥건설, 금호건설 등 관계사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매수자가 진흥건설 측이 안고 있던 부채까지 포함해 매각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광건영 관계자는 “위탁경영 계약이 10년 남아 있어 기존 인력과 시스템이 호텔을 운영할 것이다”며 “계약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인터콘티넨털 그룹의 브랜드 중 하나로 임직원 150여명이 근무하며 200여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모기업인 진흥건설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난을 겪자, 주채권자인 금호건설 등과 매각을 검토했다. 1994년 대광건설로 출발한 대광건영은 광주에 본사를 둔 회사로 지난해 말 토건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가 112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1972.27 (+0.86) | ↓ 금리 (국고채 3년) 1.53% (-0.02) |
| ↑ 코스닥 691.05 (+1.88) | ↓ 환율 (USD) 1186.10원 (-7.00)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 초혼 | 추천회원 | 재혼 |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비엔빌 B10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